존경하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원 여러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깊은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지난 5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1973년, 국문지 〈산업미생물학회지〉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는 9천여 명의 개인회원과 90여 개 단체 회원이 가입되어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세기 전, 창립자들의 미래 지향적인 전망과 지혜로 시작된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생명공학 분야가 세계무대에서도 손꼽히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상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SCI급 학술지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 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국제심포지엄과 학술행사를 매년 주최하여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국내는 물론 해외과학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연구의 장을 제공하고, 인류생존을 위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생물학과 생명공학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예로, 유전자 변형 작물과 같은 농업 분야의 생명공학 혁신은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고,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COVID-19 펜데믹은 미생물 연구의 중요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학회의 학문적 연구와 산업적 혁신이 미래사회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빛나는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미래 50년의 비전을 공유하며, 생명공학인들의 자긍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며, 그 길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태 식